자소서

내가 생각하는 개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바로 정확한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논리적 알고리즘 사고라고 생각한다.

파이썬, c언어, css, java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의 문법과 기본 cs지식, 기계적 언어의 사고를 갖아야만 자신의 의도대로 프로그래밍을 함축 집약적이게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야만 코드를 수정할수 있고 오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RP(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 단일 책임 원칙에 따라서 클라스마다의 개념을 알수 있다. OCP(Open-Closed Principle) : 개방-폐쇄 원칙에 규칙에 맞는 코드를 작성하고,

LSP(Liskov Substitution Principle) : 리스코프 치환 원칙으로 객체를 독립화시키고,

ISP(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DIP(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 의존 역전 원칙 고수준의 모듈를 독립화 시킬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코드를 확실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다른 형식적 양산 모듈 코드에 의지하지 않고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강점

나는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삶의 푯대가 된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문장은 “의지말고 쟁취하면 얻어진다” 라는 문장처럼 항상 나를 믿어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온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견해를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일은 퇴화를 바라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들 지 않습니다. 수용하면서 내 존재를 남길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은 경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결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상처주는 행위는 백해무익한걸 멀리서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몸소 실감했기에 , 저는 제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믿는법이 누구보다 잘 단련 되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를 지키기위한 단순한 방어기제로 회피하고, 타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쉴 곳을 찾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곳에 있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내 현재감정, 건강상태, 학습능력들을 분석해 가장 원하고 투가자치가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해야만 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군대와 전직장의 인간관계, 메타적 평가를 받은 나의능력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제3자의 평가는 냉정하고, 현실적이기에 나를 믿는 근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회사생활의 진취적이고 나를 아낌으로써 더 큰 생산력과 책임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전력의 ICT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미지의 바다였던 internet은 이미 우리의 삶의 필수요소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이처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주요 밥줄이 될 직무에 관심이 쏠렸고, 제 열정과 노력을 충분히 쏟아 붓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배선, 전력공급, 진기 요금의 정보들이 투명화되고, 다른 업체들과 비 교화될 수 있는 현재에 더 빠르게 우리가 산 기술을 선점하고 소통으로 차별 없이 고객과 정보와 이점을 공유한다면 업계의 최우선순위 발전을 밟는 근본전력회사가 과거 현재처럼 유지돼가리라 생각합니다.

정보기술의 소통 핵심은 인재의 유연한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인재의 생각을 개방해주고, 열린 발전 가능성이 항상 잘 표현해왔고, 그에 맞춰 근무환경이 정말 쾌적하기에 저의 아이디어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세계 정보통신 기술을 갖춰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분야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각국에 맞는 인프라를 설계해서 큰 신뢰와 공익성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먹거리인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전력설계는 반드시 투자하고 적극적인 선점이 필요한 필수분야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국외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사례에 집착하지 않고, 효율성 있는 친환경 풍력, 태양력 에너지, 송배전, 발전 송·변전 설비건설, 마이크로 그리드를 적용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빛내고, 세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2.

저는 ICT 분야에서 최근 들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입니다. 가상화폐로서의 블록체인을 넘어서, 실생활이나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블록체인은 크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화폐가 필요 없고, 처리속도가 빠르며,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의 일종입니다.

제 주요 분야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분야로, 전력 분배시스템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전력 되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해 공부하며 자연히 블록체인을 활용할 곳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전력난의 전력 사용 비율관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독자 블록체인'을 출범할 만큼 블록체인에 관심인 많은 한국전력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식을 더 쌓고,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ICT 분야에서 제가 함께 직무의 전심을 다 해 배우고 훌륭한 선배님께 내리 배움 받는다면 세계 선두의 타이틀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회사와 저의 인생도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3.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작품전시회 준비를 10개월 넘게 진행하면서 팀원 간에 서로 끙끙 앓고 있는 견해차나 미세한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느끼면서 5명의 팀원이 한 명도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피아노 계단이라는 하나의 작품에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안 순간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꾸밈없이 다 볼 수 있는 '진실의 메모'라는 노트 만들어서 의견을 종합하는 지금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견이 모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팀장으로서 피아노 계단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만 있어서 결국 완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완벽을 내려놓으면 조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팀원 개인마다 특성과 성격을 이해해야만 가장 효과성 있는 활동이 가능하기에, 필요에 따라 내 의견을 경감시키고 나머지 팀원의 의견을 강화할 수 있게 한 사람당 같은 대화 시간을 부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팀원들의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었고, 각 팀원의 장점을 확실히 파악해 토의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대상을 수상해 최고의 추억을 줄 수 있었고, 지금도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나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이었던 LS산전에 근무할 때 수출국에 납품할 제품 물량을 확인하면서, 국가 코드, 날짜, 제품 코드가 적혀있는 라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완벽한 입고를 위해 숫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위해서 잔업과 반복을 통해서 시간을 인력과 소모하게 돼,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완벽을 위해서 다른 가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완벽함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이나 효율성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에도 각자의 완벽이 존재하는데, 그 균형을 무너트린다면 미래엔 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을 지키면서 속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동료의 표준평균에 비교해가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료와 동기부여도 부여할 수 있었고, 신뢰하는 동료의 말이라면 저 역시 수긍할 수 있어서 동료와 소통을 통해 절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류도 거의 생기지 않았고, 생산력은 2배로 올렸기에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동료의 말을 존중하고, 문제의 결과에 대한 해결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완벽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